



[일제 강점과 민족 운동의 전개]

이회영 일가 이야기

독립 운동가 이야기3

The Story of Independence Movement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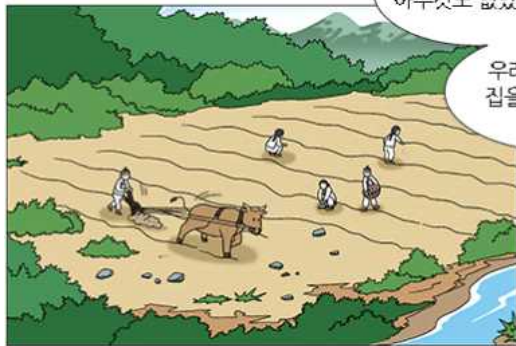


교과주제별 학습자료

우리는
서간도 류허에 자리를
잡았다.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맨손으로
집을 만들고 밭을
갈았다.

그래서 독립군을 배출할
신흥무관학교를 세웠다.



수없이 많은
독립군을 키워냈다.

독립군들은
신흥무관학교를 나온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쳤나요?



독립운동을
하려면 학교부터 지어야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무예도 익히고



역사와 지리도
가르쳤지.

10여 년 동안
3,500명이 넘는 독립군을
키워냈다.



청산리대첩에서
승리한 것도 이들의
활약이 있어서지.



교과주제별 학습자료





서른 살의 이회영이 물었다



예순 여섯의 이회영이 대답했다.

탐구 과제

- 일제 강점기의 민족의 독립을 위해 힘썼던 독립 운동가에 대해 더 알아보시다.

관련 단위

- 초등학교 5~6학년 -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 중학교 1~3학년군 - 일제 강점과 민족 운동의 전개

통어 정리

이상룡 : 한일병탄 이후 만주로 건너가 이시영, 이회영 등과 삼원보에 독립군 기지와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독립운동가

신흥무관학교 : 신민회 소속이던 이회영, 이시영, 이상룡 등이 만주 삼원보에 세운 독립군 양성 학교, 원래는 신흥강습소였던 것을 확대하여 1919년에 신흥무관학교로 바꿈